

영생하는 주체 영은 하나님, 인간은 영생 못해

인간은 스스로 구원이 될 수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구세주로 오셨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회복 되어야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순간 인간으로 변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회복 되어야 구원이요, 하나님으로 회복 되어야 영생이지 인간 자체로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인간 자체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자 하나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6000년이 걸린 거야. 또 하나 만드는데 6000년이 앞으로 또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립니다) 안 걸려? 또 걸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구원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구원 얻는다는 그 헛된 꿈은 버려라, 이 소리야. 아시겠어요? 구원을 못 얻고 기왕 죽을 바에는 이제 그대로 빨리 나라는 건 죽어야 돼, 살려야 돼? 나라는 건 죽어야 돼. 아시겠어요? 누가 구원을 얻느냐면 바로 구원을 얻은, 영생체로 화해진 완성의 인간자가 인간 속에 들어가야 그 인간이 구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 자체로는 구원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만든 거예요.

인간자 구세주 하나님이 죄인 속에 들어가야 영생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는 바로 뭐냐면 이제 그대로 완성의 구세주 인간자 하나님이 이제 그대로 죄인 속에 하나, 하나 분신으로 들어가야 그 인간이 바로 완성의 인간자 때문에 텅달아서 구원을 얻는 거지 자체로는 구원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구원을 얻으려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들다.”고 그랬어, 쉽다고 그랬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이미 구원을 완성한 완성의 인간자가 분신으로 여러분들 마음 속에 점령이 되어야 이제 그대로 완성의 인간자 구세주 하나님이 영생을 누리려고 분신으로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구원과 상관이 있어, 없어? 내가 구원이야, 하나님이 구원이야? 하나님이 구원이야. 아시겠어요?

이제 그대로 오늘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주 뭐 선행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된다면 이 세상 벌써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겠죠? 지금 사람처럼 옛날 사람은 약한 사람이 없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선행했어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안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이제 그대로 확실하게 이 사람이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주죠?

나라는 주체영이 죄

그러므로 마음이 비어있어야 완성의 인간자 하나님의 영이 그 빈 집에 들어가 지 뭐가 마음에 꽉 차게 들어있으면 완성의 인간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워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주체영이 하나님



구세주 조희성님

이지 사람의 영은 이제 영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의 영은 죽게 돼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말씀은 뭐냐면 죄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죠?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라의 주체영이 죄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나라의 주체영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게 사이비 종교야, 진짜 종교야? 그게 사이비 종교야. 아시겠어요?

구세주가 믿음이고, 완성의 인간자 하나님 구세주가 믿음이고로 믿음 자체가

구원이지만 이제 그대로 믿음 아닌 존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올시다.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고로 그러므로 내 마음을 하루 빨리 비워놓기 위해서는 시간 시간이 내 생각을 지우고 내 생각을 버리는 투쟁을 해야 돼, 내 해야 돼? 내 생각을 버리는 투쟁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방법

이 사람이 옛날에 내 생각을 버리는 투쟁을 할 때 어떤 투쟁을 했냐면 바로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실으로 좋아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생활

을 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을 마귀새끼라고 두들겨 패는 사람한테 감사했다고 그랬어, 이 사람이 화를 냈어요? 감사하다고 그랬죠? 왜 감사하다고 그랬냐면 이제 그대로 나를 완전히 두들겨 패면 나버지 자존심 마귀가 일어나서 화를 낼까, 안 낼까? 화를 내죠? 그런데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자존심 나버지 마귀가 죽을까, 안 죽을까? 이것이 도 닦는 거야. 도 닦는 방법. 이게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바로 구세주요, 구세주가 바로 믿음이고로 바로 구세주 안에 종교가 있고 종교 안에 구세주가 있는고로 그러므로 지금까지 종교가 없었다는 말은 바로 구세주가 없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대로 이 세상에 구세주가 나왔다는 것은 인류의 구원선이 나왔다는 것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죠? 구세주를 만나고도 여전히 자기 자랑이나 일삼고 이제 그대로 자기를 탐만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말로 불쌍한 사람이야,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예요. 아시겠어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이제 그대로 구세주가 나왔으면 나를 버려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온데간데 없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대로 오늘날 구세주 하나님이 분신의 능력이 있다고 옛날 영모님이 세 번째 사람에게 분신의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세 번째 사람에게 분신의 능력을 준다고 그랬죠? 분신의 능력을 준다는 건 바로 분신할 수 있

는 게 구세주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도 안 되고 두 번째 사람도 안 돼. 세 번째 사람이라야 분신의 능력을 갖는 거야. 분신의 능력은 세계 인류가 56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56억의 몸으로 쪼개서 나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분신의 능력이 없이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없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끔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어떻게 된다고? 잘 보여야 구원 얻는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무슨 소리냐면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구세주한테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게 바로 원칙이야. 원리. 구원의 원리야. 구세주한테 잘 보여야 구세주의 분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요. 미운 사람한테 들어갈까? 안 들어가. 어렵도 없어. 구세주한테 잘못 보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세주한테 잘 보여야 이제 그대로 구세주가 혹 자존심이 조금 남았어도 그걸 제거하고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이제 그대로 구세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좌정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생명과일을 먹는 것이요, 믿음을 가졌다가 되는 것이요,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구세주가 나왔다는 것은 이젠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주는 거죠?*

1992년 8월 13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형욱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3장 야곱의 하나님》 (10) 이방 신상과 의복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지난호에 이어서) 그리고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자식들과 합쳐하여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사로잡은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또 노략질한 재물과 가축도 레아에 속한 자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세겜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도륙당하여 세겜 성읍이 피바다를 이루었다는 소문이 가나안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참담한 소문이 야곱의 고향 브엘세바까지 퍼져, 리브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손자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말을 듣자 깜짝 놀라고 또 이 손자들이 오라버니 라반의 딸의 자식이었기에 더욱더 상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리브가는 병을 얻어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지 보름 만에 리브가는 자신의 유모 드보라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들 야곱을 지척에 두고 얼굴도 못 보고 죽게 되니 참으로 한스럽습니다. 나 대신 유모라도 야곱을 찾아보고 어머니의 안부를 전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자들이 어려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 유모가 힘닿는 데까지 나

대신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133세의 나이에 임종하였습니다.

(10) 이방 신상과 의복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워있는 막벨라 굴에 잠사지내기 위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헤브론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리브가를 안치시킨 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헤브론을 떠나 세겜에 가서 야곱에게 모친의 임종을 전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복수를 전해 듣고 그 충격으로 할머니 리브가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크게 누우셨습니다. 그리하여 레아의 자식들은 노예로 삼은 세겜 사람의 처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재산과 가축도 되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자식들은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을 돌이켰습

니다. 그들은 세겜 성읍의 딸 가운데 하나를 취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레아가 낳은 23세의 르우벤은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도륙할 때에 강간하였던 처녀를 찾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레아가 낳은 22세의 시므온과 21세의 레위는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칼로 잔악하게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세겜 성읍의 여자들을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16세의 스불론은 세겜 성읍의 딸 중에 하나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또 레아가 낳은 20살의 유다는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도륙할 때에 강간한 처녀가 있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유다에게 강간당한 처녀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레아가 낳은 다섯 명의 아들 중에 유다만이 세겜 성읍의 딸 중 하나를 아내로 얻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방 신상과 의복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런 연후에 내가 네 형에서 피하여 도피하던 중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사닥다리 위에서 있던 나 여호와를 보았던 곳으로 가서, 거기

서 단을 쌓아라.”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에서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 자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시편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야곱이 우상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과 종들에게 전하자, 모두 자진하여 신상과 귀고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때 라헬도 흠뻑은 아버지 라반의 신상과 드라빔을 내놓았습니다.



“디나를 취하는 세겜(창34:2), 세겜의 여자를 취하는 레아의 자식들(창34:29), Rape of Dinah: Giuliano Bugiardini (1475-1554). <https://gallerix.org/album/KHM/pic/glxr-1144506765>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내놓자 비로소 베엘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우상을 묻고 베엘로 향했습니다. 베엘에 도착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이 무렵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엘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잠사되었습니다.

야곱이 베엘을 떠나 아버지 이삭이 계시는 헤브론으로 향하던 도중 그의 아내 라헬이 난산하여 아들 베나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라헬을 예브랏으로 가는 길에 잠사지내고 그녀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고 네모반듯한 돌제단을 차렸습니다.

창세기 35장 17절 라헬이 아기를 낳노라고 신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When her labor was at its worst, the midwife said to her, “Don't be afraid. This one will also be a son for you.”

라헬의 뱃속에서 요셉과 베나민이 나왔는데, 라헬의 두 아들은 마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은 야곱의 분처 라헬이 낳은 자식이기에 하나님 신이 요셉에게 옮겨진 것으로 보고 그를 없애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다음호에 계속)*